

그린뉴딜風...EU, 코로나19 대응 "녹색전환" 초점

'20.06.02(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EU집행위, 7,500억 유로(약 1,02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계획안 발표(5.27)

*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Europe's moment : Repair and Prepare for the Next Generation」 (<https://bit.ly/2M3p9YX>)

○ 유럽연합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예산으로, 이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5,000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2,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급

* EU 자체 자원 한도를 일시적으로 국민총생산의 2%로 늘려 예산을 조달하고, 향후 탄소국경세, 플라스틱 및 디지털 세금 등 새로운 수입원 통해 상환 예정

□ 이번 계획의 초점은 "녹색전환 및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있으며, 계획안에 '그린딜' 포함

○ 모든 지원은 녹색전환의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는 녹색 조건이 붙으며, 예산의 25%가 기후친화적인 지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투자는 기존 "do no harm(피해를 끼치지 않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 화석연료와 원전은 지원에서 배제

※ 주요내용

① 건물 및 인프라의 대규모 혁신(renovation wave)과 순환경제 투자 확대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기대

- "30년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 시, GDP의 1%를 추가할 수 있고 새로운 녹색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

②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유럽의 청정 수소 경제 착수

③ 청정 운송 및 물류

- 전기자동차 충전소 100만개 설치, 청정 모빌리티 구현

④ 공정전환펀드(Just Transition Fund) 강화

- 재교육을 돕고 기업이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붙임 :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번역본 1부. 끝.

* 원문 : European Commission, 「Europe's moment : Repair and prepare for the next generation」(20.05.27,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940)

오늘 EU 집행위원회는 주요 경제회복 계획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합니다. 그 과정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모든 회원국에게 공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개선된 장기적 EU 예산을 포함한 새로운 회복책으로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를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유럽의 경제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우선 시하기 위한 '업무 프로그램 조정 계획(Adjusted Work Programme for 2020)'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는 보건 및 복지 시스템, 사회와 경제, 우리가 생활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시험하며 유럽과 세계를 뒤흔들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보호하고, 유럽연합을 복구하는 동시에 지속적이고 번영할 수 있는 회복을 구축하기 위해 EU 예산의 모든 잠재력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7,500억 유로의 차세대 EU와 '21년부터 '27년까지의 강화된 장기 EU 예산안까지 포함하면 EU는 총 1조 8,50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회복 계획은 복구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을 기회로 바꿀 것입니다. 유럽 그린 딜과 디지털 전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고, 우리 환경을 지킬 것입니다. 지금이 유럽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부응하는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EU를 통해 우리는 야심찬 해법을 제시합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요하네스 한 EU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예산은 유럽 경제회복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차세대 EU 와 강화된 ‘21년~’27년도 EU 장기예산안(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MFF)의 추가적인 화력은 회원국과 경제를 지원하는 연대의 힘을 보여 줄 것입니다. 함께, 유럽은 더욱 경쟁력 있고 회복탄력적이며 강력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마로쉬 셰프초비치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방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 개정된 업무 프로그램은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럽연합을 회복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회복으로 향하는 경로에 안착시킴으로써 이번 위기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임을 보여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EU 예산은 국가적 노력을 보완하는 것으로, 공정한 사회경제적 회복, 유럽연합의 복구 및 활성화, 공평한 경쟁의 장(場) 보장, (특히 유럽의 미래 영속성과 회복탄력성에 주요한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긴급 투자 지원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EU 자체 자원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국민총생산의 2%로 늘려 높은 신용등급을 인정받아 차세대 EU를 위한 7,500억 유로를 조달할 것입니다. 이 추가 자금은 EU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될 것이며, 미래 EU 예산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28년~’58년) 상환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자체 자원책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가장 중대한 요구에 빠르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추가적인 115억 유로가 ‘20년에 바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14년~’20년도 장기예산안(MFF)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세대 EU’ 기금은 3가지 주요 축에 투자될 것입니다.

① 투자와 개혁을 통한 회원국 지원

- 5,600억 유로의 ‘신규 복구·회복 퍼실리티(new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를 통해 투자와 개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공.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 국가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EU의 우선순위와 연결됨. 이는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 EU 예산 편성과정을 뜻함 - 역자 주) 제도에 포함됨. 최대 3,100억 유로가 보조금의 형태로, 2,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급, 모든 회원국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회복 필요성이 큰 곳에 집중될 것
- 새로운 REACT-EU 이니셔티브에 따라 현재부터 ‘22년까지 현재의 결속정책 프로그램(cohesion policy, 유럽공동체 내부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정책 - 역자 주)에 550억 유로 사용, 회원국의 상대적 번영 수준과 청년 실업률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정도에 따라 배정
- 각국의 기후중립을 위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정전환펀드(Just Transition Fund)를 400억 유로로 강화하는 것을 제안
- 농촌지역개발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을 150억 유로 보강, 유럽 그린딜에 따라 지방에서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새로운 생물다양성 및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strategies,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략 - 역자 주)과 일치하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민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EU 경제 활성화

-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 지역, 부문의 유망한 유럽 기업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상환능력 지원 수단(Solvency Support Instrument)'을 통해 민간자본을 동원. 본 제도는 '20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으며, 310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어 3,000억 유로가 모든 경제 분야의 기업의 상환능력을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하여 모든 기업들이 청정·디지털화·회복력 있는 미래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의 주요 투자 프로그램인 InvestEU를 153억 유로 수준으로 높여 EU 전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동원
- InvestEU에 새로운 '전략적 투자 퍼실리티(Strategic Investment Facility)'를 구축, (특히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 내수 시장의 핵심 가치 사슬과 관련된) 전략적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 1,500억 유로의 투자를 창출하고자 함. 차세대 EU 기금으로부터 150억 유로가 지원될 것

③ 이번 위기의 교훈을 해결

- 94억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는 새로운 보건 프로그램 EU4Health를 통해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고 보건안보 강화
- EU 시민보호기구(Civil Protection Mechanism)의 rescEU(시민들을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제도 - 역자 주)에 20억 유로를 보장, 미래 위기에 더욱 빠르게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강화
- Horizon Europe(EU의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 - 역자 주)을 위해 944억 유로를 보장, 보건, 회복탄력성, 녹색전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연구에 사용될 것

- 165억 유로를 추가로 분배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원조 등 유럽의 글로벌 파트너 지원
- 다른 EU 프로그램들도 회복 필요성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미래의 재정 체계를 맞추기 위해 강화될 것이며, 예산의 유연성과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수단도 함께 강화될 것

회복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을 부여하고, EU가 미래를 위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추기 위해서는 7월까지 유럽이사회에서 '21년~'27년 EU 예산안과 차세대 EU에 대한 빠른 정치적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회복을 위한 정책적 기초사항

경제 재개는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위기로 인한 단기적 손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차세대 EU의 모든 자금은 조정된 EU 장기 예산안의 EU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됩니다.

EU 경제회복 전략으로서의 유럽 그린딜

-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물과 인프라의 대규모 혁신과 순환경제
- 풍력 및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유럽의 청정 수소 경제 착수
- 전기차 충전소 100만개 설치 및 철도 수송 확대, 청정 모빌리티 구현을 포함하는 청정 운송 및 물류

- 재교육을 돕고 기업이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정전환펀드(Just Transition Fund) 강화

유럽연합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응

- 5G 네트워크의 빠른 구축 등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투자
-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슈퍼컴퓨팅 및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전략적 부문에 더 강력한 산업적 기술적 강화
-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서 데이터 경제 구축
-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 향상

모두를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회복

-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유럽실업재보험제도 (European Unemployment Reinsurance Scheme, SURE)를 통해 1,000억 유로 지원
- 산업인력정책(Skills Agenda for Europe) 및 디지털 교육 액션플랜을 통해 유럽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
- 공정한 최저임금제도와 구속력있는 임금 투명성 조치로 여성과 같은 취약 근로자를 지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탈세와의 싸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국의 수입 창출에 도움이 될 것